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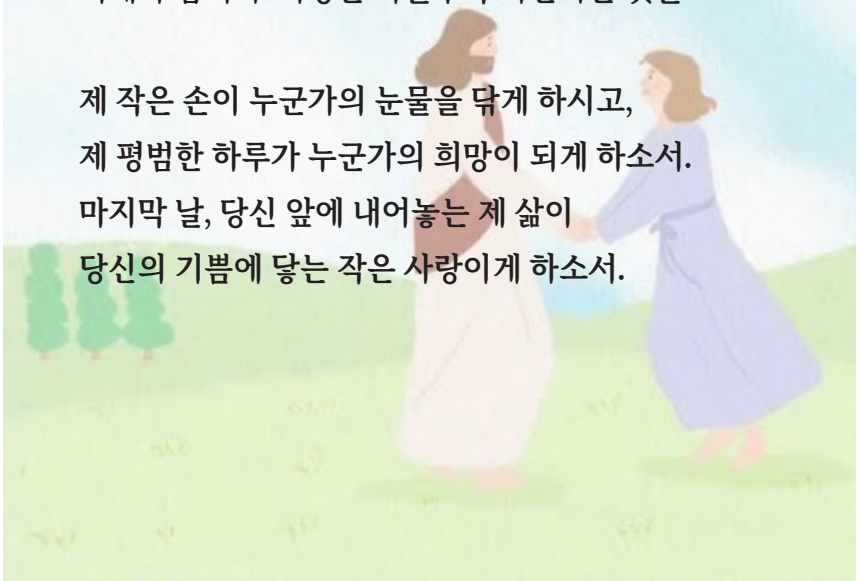
당신께 돌려드릴 사랑

주님, 제게 맡기신 작은 빛 하나를
잃을까 두려워 오래도록 품에 감추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손길을 기다리고,
누군가는 단 한마디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자란다는 것을.

제 작은 손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게 하시고,
제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날, 당신 앞에 내어놓는 제 삶이
당신의 기쁨에 닿는 작은 사랑이게 하소서.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6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부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 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하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우리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11/01/2026 기준
현재 기부 금액 - $34,265
현재 참가 인원 - 78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가 안내	입당 성가: 48	예물 준비 성가: 446, 212	성체 성가: 502, 504	파견 성가: 27

모든 성인 대축일(11/8)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66명	67명	183명	161명	44명	521명

성녀 마더 데레사(2)

가장 작은 이에게 건넨 사랑



콜카타 빈민가에 홀로 들어간 데레사 수녀의 곁으로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1950년 10월 7일, 마침내 '사랑의 선교 수녀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그들의 사명은 분명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다.

데레사 수녀는 길거리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1952년에는 임종을 앞둔 이들을 돌보는 집을 열었다. 수녀들은 병자들의 몸을 씻기고 상처를 돌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다. 병을 모두 고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한 사람이 버림받은 채 외롭게 죽어 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 그것은 가난한 이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 주는 사랑이었다.

이후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와 병자들을 위한 돌봄의 공간이 마련되었고, 사랑의 선교 수녀회의 손길은 인도를 넘어 온 세계로 뻗어 나갔다. 1979년 데레사 수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러나 세상의 찬사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의 손을 잡고 미소를 되찾은 한 사람, 존엄을 지키며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

이 사랑의 바탕에는 깊은 신앙과 기도가 있었다. 데레사 수녀는 성체 안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거리의 가난한 이들 안에서 다시 알아보았다. 그 자신도 오랫동안 하느님의 침묵과 영적 어둠을 겪었지만,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사랑은 언제나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다른 이의 곁에 남아 주는 충실함일 수 있음을 그의 삶은 증언한다.

1997년 9월 5일, 데레사 수녀는 콜카타에서 선종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2003년 10월 19일 그를 시복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9월 4일 성인품에 올렸다. 교회는 해마다 9월 5일을 '콜카타의 성녀 데레사' 기념일로 지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성 미사에서 그가 길가에 버려져 죽어 가던 이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존엄을 보았다고 일깨웠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성녀 마더 데레사는 이 복음 말씀을 평생의 삶으로 옮긴 사람이었다. 그의 거룩함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위대한 업적에만 있지 않다. 오늘 내 곁에서 위로와 관심을 기다리는 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일. 바로 그 작은 사랑에서 성녀가 걸었던 길이 우리에게도 시작된다.

공지 사항

1 주임 신부님 영명축일

11월 23일은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 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 되어 영적, 물적 봉헌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성당 로비에 봉헌함을 설치했습니다. 모든 신자께서는 신부님께 드리는 영적 · 물적 봉헌을 준비된 용지와 봉투에 넣어서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봉헌 기간: 10/17 – 11/15
- 봉헌일: 11/22(주일) 오전 10시 미사 중

2 미사 안내

A. 11/19(목) 주중 미사는 오후 7시에 변경없이 그대로 봉헌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B. Thanksgiving 관계로 11/26(목) 오후 7시 미사가 오전 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재외동포를 위한 초청 공연 취소

11/9(목)에 예정되었던 초청 공연은 취소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Shoeboxes of Joy 2026

대건회에서 Shoeboxes of Joy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후원 기한: 11/15(주일)까지

후원 목록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베드로회 모임

- 일시: 11/15(주일) 8시 미사 후
- 장소: 101호실

6 구역장 회의

- 일시: 11/22 (주일) 교중미사 후
- 장소: 110호 교리실

모든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판공성사 안내

2026년 성탄을 맞이하여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는 판공성사가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구역	날짜	시간	장소
Mukilteo	11/20(금)	5:30 PM	구역 가정
Shoreline + Mill Creek	11/21(토)	11:00 AM	성당
Bothell	12/05(토)	3:00 PM	구역 가정
Seattle	12/10(목)	4:00 PM	구역 가정
Sammamish	12/11(금)	5:30 PM	구역 가정
Bellevue	12/12(토)	4:00 PM	구역 가정
Redmond	12/19(토)	4:00 PM	구역 가정

8 구역 음식 봉사

- 음식 봉사: Lynnwood/ Edmonds
- 일시: 11월 22일 (주일)
- 메뉴: 돼지양념구이, 미소국, 생고추무침

9 본당 사무장 모집 안내

본당에서 함께 근무하실 풀타임(Full-time) 사무장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본당 신부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근무 조건 및 관련 사항은 본당 신부님과의 면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 성탄 미사 Chamber 단원 모집

12월 24일 성탄 전야 미사와 25일 성탄 미사에 함께하실 Chamber 단원을 모집합니다.

- 신청: 11/14(토)까지
- 문의: 송 요안나 425.445.1230

11 성탄 한마음 잔치 공연 신청

- 신청 기한: 11/15(주일)까지
- 신청 접수: 공연에 참가할 개인 및 단체는 사무실 앞에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자들의 참여와 성원으로 풍성한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 문의: WYD 준비위원장 이선재 마르티노 standrewkimworldyouthday@gmail.com 425-786-4082

입당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제1독서 ····· 잠언 31,10-13.19-20.30-31

<훌륭한 아내는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한다.>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제2독서 ····· 1 테살 5,1-6

<주님의 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25,14-30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영성체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우 리 들 의 정 성

[교무금] 정영자 이태경 이지연 이계숙 김경화 이영수 박원규 이천우 이승우 전윤원 이석돈 이진순 이두순 곽영준 신 정 탁희선 유애림 김창환 김재호 신철순 김한웅 한천혜 안창남 배원병 홍종미 황길수 이진만 문범기 임대금 양대석 하길용 홍소영 신경협 오연수 김창문 최정필 이종성 조선경 노현석 신길하 이수용 오세영 이상철 Kyung Paik Jang won Lee

[교무금 Push Pay] 유승일 노유정 이로사 박소영 이경아 최금희 김명준 맹성호 이진열 송승혜 김종대 박정임 이제용 이서영 안마슈

[감사 헌금] 정순도 김두근 김태자 Sound of Korea [꽃봉헌] 민들레

주일 헌금	교무금	교무금 PUSH PAY	감사 헌금	꽃 봉헌	-
$6,074.00	$11,035.00	$1,778.80	$620.00	$100.00	-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억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퀸텟 융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겟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퀸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 디 맨	Bridge Tax Services
홈페이지 제작/광고/행사/유튜브 촬영 & 편집/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화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목요일 (12/3/26) 유아세례: 오후 3시 토요일 (12/19/26)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 제10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
(2026년 11월 15일, 연중 제33주일)

주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피신처이십니다(시편 14[13],6 참조)

1. 주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피신처이십니다(시편 14[13],6 참조). 시편 저자의 이 말씀은 제10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하느님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의 삶에서 가난한 이들이 지니는 중요성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하느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인간의 가난을 확인시키기에 그리스도인 삶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는 비극적인 역사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현존을 빼앗겼다고 느끼고 전례 없는 물질적, 도덕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세대에게 언제나 시의적절하게 다가옵니다. 첫 구절부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자주 빠지곤 하는 모순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에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느님은 없다.' 말하네. 모두 타락하여 악행을 일삼고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시편 14[13],1).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는 이들과, 그 반대로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의 대조적인 모습이 부각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만무도한 타락에서 생겨난 사회적 불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만연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는 차별적인 모습이자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초월에 대한 감각의 상실은 하느님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과 사회의 정의를 추구할 때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고려하지 않는 데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 결과로 가장 먼저 고통받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부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 존중하며 나란히 서게 하지 않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지배와 억압의 관계로 군림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학대와 배척의 신성모독적인 논리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의 시편 말씀이 여전히 진실되게 울려 퍼집니다. "내 백성을 빵 먹듯 집어삼키는 저들"(시편 14[13],4).

2. 오늘날 정의를 향한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은 점점 더 교묘해지는 수많은 책략으로 침묵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요구를 알리려는 모든 노력이 소리를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디지털 세계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편견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들의 곤경을 더욱 두터운 무관심의 장막으로 가려 버립니다.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시편 34[33],7 참조). 그들은 하느님께서 성실하시고 자비가 가득하신 분이기에 자신들의 탄원을 귀 기울여 들어 주시리라 확신하며 비통함을 아룁니다. 오늘날에도 억압받고 모욕당하며 무방비 상태에 놓인 이들은 믿음과 기대로 가득 차서 하느님께 자신을 맡겨 드려야 한다는 확신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내맡김을 통하여 그들은, 자기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꽃피우고, 꿈을 함께 나눌 형제자매들을 알아봅니다. 그리하여 희망은 조용히 현실이 됩니다. 하느님께 피신한다는 것은, 권력자들은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하려 하는 참되고 영원한 보호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은 본질적인 것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본질적인 것을 더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은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을 자신의 피신처로 인식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러합니다. 또한 머지않아 실현될 그분의 정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버림받고 외로운 밤에도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속에 삽니다(시편 91[90],1 참조). 가련한 모든 이, 불의를 겪고 억울한 처지에 놓인 모든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이, 외로움을 느끼며 삶의 목적을 잃은 모든 이가 주님 안에서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하느님께서 그들의 피신처시라는 사실은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현실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자의 강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사시며, 우리가 바라는 피신처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하느님의 피신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시어 가장 작은 이들이 있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십니다. 또한 모든 이에게 손을 내밀어 안전한 피신처를 제공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가난을 함께 나누십니다.

↘

우리 시대의 가난한 이들은 잊히고 소외된 이들입니다. 그들은 빵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얼굴마저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아드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 안에서 그분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당신 몸인 교회 안에서 빵을 떼어 주시고 우정을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을 가져다주시고, 희망의 지평을 열어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모든 이의 존엄성을 회복해 주십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하느님의 선물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실현됩니다. 집 또는 일자리가 없고,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며,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건강을 잃은 이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곧 하느님 나라를 보여 주는 나눔의 길이 열립니다(마태 5,3 참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의 집착에 맞서, 한결같은 분이신 하느님께서는 실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마음을 열어 주시고 모든 이를 당신 사랑 안으로 맞아들이십니다.

4.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이들의 피신처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지만 자기만의 벽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 본성상 가난해야 하며 가난한 이들의 피신처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라자로의 비유에 관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설교를 잊지 맙시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부자의 이름은 감추시고 가난한 사람의 이름은 알려 주셨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이름을 당신만 알고 계셨고, 가난한 사람의 이름은 침묵 속에 스쳐 갔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 그대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자로처럼 가난한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될 것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 결말이 어떠하였는지 귀를 기울이고, 어느 쪽이 잘못된 선택인지 유념하십시오"(「설교」[Sermone], 33A, 4).

제가 교황 권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Dilexi Te)에서 강조하였듯이,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각별히 사랑하십니다. 희망과 해방의 주님 말씀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가난한 이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거나 약할 때에 아무도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참행복의 교회, 곧 작은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가난하게 걸어가는 교회, 가난한 이들이 특권적 자리를 차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21항).

몇 가지 질문들이 필연적으로 떠오릅니다. 이번 제10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 우리는 이 질문들이 우리 마음과 정신에 절실히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피신처이신 하느님의 표징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난을 자각하고 있으며, 그 가난을 불의한 부유함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까? 우리는 가난한 이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그들의 소외를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생각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자애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애덕은 그들 안에서 정의와 구원에 대한 열망을 다시 일깨우고 지탱해 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과 그 밖의 수많은 질문은 우리가 가난한 이들과 그들의 해방을 위하여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깊은 양심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가난한 이들 스스로가 다른 이들에게 피신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난을 겪은 이들은 여러 어려움에 맞서 새롭게 연대하는 일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삶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안에서 피신처를 찾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피신처가 되어 주도록 부름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움을 주는 이와 받는 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와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가난해 보이는 이와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도움을 준다고 느끼는 이를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가난한 이들의 교회입니다. 모든 이가 소중하고 모든 이가 주인공이며 저마다 유일한 하느님 말씀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이를 위한 선물입니다"(2025년 8월 17일 강론).

5.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을 맞아, 우리는 성인이 베드로 사도의 무덤을 순례하려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걸인들을 보고 깊은 연민을 느꼈던 일을 되새겨 봅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체험하고자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기 옷을 벗고 그들 중 한 사람의 누더기 옷과 바꿔 입은 뒤, 앉아서 구걸하며 가난한 이들 사이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프란치스코 전집』[Fonti Francescane], 1405-1406 참조). 우리는 단지 가난한 이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보다 그들의 처지에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오늘날에도 똑같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는 이들은 예언자적 선택을 할 자유를 누립니다. 이러한 선택은, 교만으로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겸손과 형제애 안에서 모든 것을 근본부터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저는 이번 제10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 하느님 안에서 피신처를 찾으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기를 갈망하는 수많은 형제자매의 얼굴을 다시 발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마음의 회개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히 머무릅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 아드님의 육신 안에서,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시는]"(루카 1,53) 하느님의 사랑을 관상하셨던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구해 주시기를 빕니다.

바티칸에서
2026년 6월 13일
가난한 이들의 수호자,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 학자 기념일

교황 레오 14세